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본 연구는 요즈음의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이루어졌다. 포아 등이 제시한 서비스, 물품, 금전, 정보, 지위, 애정을 포함하는 6가지 자원영역 개념과, 긍정적 교환(보상)과 부정적 교환(처벌)의 구분을 활용하여,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에 어떠한 자원이 교환되는지, 교환되는 자원이 상호간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자원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칭적인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발달단계가 교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하는 청소년 자녀 150명과 어머니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자료 분석 결과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교환은 부정적 자원보다 긍정적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자원은 애정을 제외하고는 유형에 따라 비대칭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자원은 대체로 자녀가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지만, 자원의 가치는 어머니에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정적 자원은 교환이 비교적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환빈도가 높은 자원은 부정적 가치가 약하다. 딸이 아들보다 어머니와 보다 긴밀한 교환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애정과 정보영역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녀의 연령은 교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단어: 청소년자녀, 부모자녀관계, 교환, 자원, 보상, 처벌, 가치

I.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는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남녀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어머니에게 청소년기의 딸 또는 아들 존재의 의미가 무엇에 있는지, 역으로 청소년기의 딸 또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존재

*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KRF-2004-042-B00103)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sunilee@ajou.ac.kr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kimhj@cau.ac.kr

****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yblee@kangnam.ac.kr

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환이론은 모든 인간관계를 자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해한다. 자원은 보상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처벌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는 그 관계가 존속되는 것이 소멸되는 것보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 바꾸어 말하면, 관계의 존립 근거는 호혜성(reciprocity)이며, 호혜성이 없는 관계는 결국은 소멸된다는 것이 교환이론의 입장이다.

교환이론의 관점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도 예외 없이 호혜성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기까지는 부모가 거의 일방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호혜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가 성장한 후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호혜성이 실현된다는 것이 교환이론의 전통적인 입장이었다 (Fincy & Mason, 1993; Silverstein & Bengtson, 1997; Silverstein, Parott, & Bengtson, 1995; Whitbeck, Hoyt, & Huck, 1994).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호혜성을 이루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부모들은 과거처럼 자녀에게 투자하는 대가로 노동력이나 노인부양의 형태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여봉, 이미정, 2003). 자녀는 과거와는 다른 가치를 지닌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양육의 기쁨, 자녀로부터의 애정과 존경, 자신의 영향력 발휘의 기회, 자기 발전 및 성장 동인 등과 같은 것이다 (Hoffman & Manix, 1979; Lamanna, 1977; DeWitt 1992). 전통사회에서 미성년 자녀가 수행해 온 도구적 기능은 많은 부분 사라졌지만, 부모에게 정서적인 충족감을 주는 존재로서의 자녀의 의미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커졌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Zeizler(1985)는 “Pricing the Priceless Child”라는 글에서 현대에 와서 자녀의 존재가 경제적으로는 무가치해졌지만, 정서적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서적 자원이 가족구성원 간에 교환되는 중요한 자원임을 인정하면, 자녀는 장기적인 관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중요한 자원의 공급처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정서적 자원은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쪽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적 친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가족관계에서 정서적인 자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자녀의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편, 일부 연구자들은 사랑과 애착이 활발하게 교환되는 부모-자녀 관계는 문화적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는 오늘 날의 부모-자녀관계가 친밀성의

욕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들 속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정서적 충족감을 촉진하는 여유로운 생활양식을 방해할 수 있다. 또 직업적 경력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나 자아실현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Ambry, 1992; Longman, 1998). 둘째, 생활세계의 다원화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접촉의 기회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시화, 부모의 장거리 통근, 어머니의 취업, 자녀양육의 사회화 등은 부모-자녀간의 접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들이다. 또한 부모들은 점차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신 자녀의 또래집단, 학교, 각종 미디어가 부모의 위치를 잠식하고 있다 (Bronfenbrenner, 1970). 이러한 현상은 아동기보다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부모들의 만족도를 가장 낮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Steinberg & Silverberg, 1987).

한국에서도 자녀의 가치와 관련하여 혼란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젊은 세대의 가족 형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만혼과 저출산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게다가 젊은 부모들일수록 부모-자녀관계에서 친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세대 간 생활방식이나 의식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입시부담은 부모-자녀의 생활세계의 단절과 친밀성의 침해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원 외, 1995).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과연 오늘날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양육은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역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교환이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서 어머니 150명과 청소년 자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대상에서 아버지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관계로 제한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특정 인과적 모형을 검증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즉,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원의 교환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게 교환되는 자원이 자녀와 어머니에게 각기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로의 관계에서 무

엇을 기대하며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사이에서는 어떤 자원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교환되는가? 교환되는 자원들은 어머니 또는 자녀에게 어떤 보상적 또는 처벌적 가치를 지니는가? 어머니와 자녀 간 자원 교환의 상호성에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 자원의 교환이 대칭적인가 비대칭적인가, 비대칭성은 어떠한 유형으로 존재하는가? 청소년 자녀의 성별이나 발달단계는 자녀와 어머니 간의 자원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교환이론적 관점

교환이론은 모든 지속적 관계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행위자들의 지위나 보유하는 자원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호혜성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교환이론의 기본 시각이다 (Walster & Walster 1978; Sprecher & Schwartz 1994). 많은 연구 결과들은 호혜성의 원리가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를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에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Blood & Wolfe 1960. Fincy & Mason 1993; Luster, Rhodes, & Hass 1989).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호혜성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일부 연구들은 부모-자녀 간에 호혜성의 원리가 단기적 차원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일찍이 Blau(1964)는 물질이나 서비스 차원의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행위자에게는 예컨대 고마움의 표현 같은 것이 자원으로서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고마움의 표현은 상대방이 지닌 힘이 자신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관계를 연구한 Pyke(1999)에 의하면, 부양 서비스를 받는 부모가 고마움의 표현으로 보답을 하지 않을 경우, 호혜성의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가 긴장국면에 접어들게 되며, 부양지원에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또, 부모가 경제적

으로 부유할수록 자녀가 부모의 가치관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양육 서비스를 받는 자녀가 부모의 가치관에 정서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Luster, Rhodes, & Hass, 198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떠한 교환이 이루어지를 살펴보고, 호혜성의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자원의 개념

교환이론에서 자원이란 인간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자원은 물품처럼 구체적인 것일 수 있지만,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이나 칭찬의 말이나 비난의 눈초리 등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다. Foa 등(1993)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자원을 특수성-보편성, 상징성-구체성의 두 차원을 바탕으로 6가지 영역의 자원으로 분류한 바 있다. 6개 영역이란 서비스, 물품, 금전, 정보, 지위, 애정이 포함되는데, Foa와 동료들에 의하면 이 여섯 영역이 인간관계에서 교환되는 모든 자원을 망라한다.

자원은 또 긍정적 자원과 부정적 자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긍정적 자원은 상대방에게 보상이 되는 자원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원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을 12가지 유형의 교환행위로 조작화 하였다 (표1 참조).

우선, 긍정적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자원은 일을 함으로써 상대를 편하게 하거나 편리하도록 해 주는 행위이다. 물품 자원은 가치 있는 물건을 제공하여 소유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며, 금전 자원은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정보 자원은 유용하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정보나 진실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의 말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 주는 행위이다. 지위 자원은 칭찬·격려하는 말을 하거나 다른 행위를 통해 상대의 위신과 자존심이 높아지게 하는 행위이며, 애정 자원은 사랑과 친밀함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표 1〉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간 교환되는 자원의 조작적 정의

	긍정적 자원	부정적 자원
서비스	일을 대신하여 편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행위	수고를 끼치고 불편하게 하는 행위
물 품	가치 있는 물건을 주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가치 있는 것의 소유나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 전	돈을 주거나 금전적 이익을 주는 행위	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정 보	유용하고 좋아하는 정보나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위	정보를 박탈·차단하거나 침해하고, 거짓 정보나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행위
지 위	위신과 자존심을 높여주는 행위	자존심과 체면을 훼손하는 행위
애 정	애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애정의 결핍이나 증오를 느끼게 하는 행위

다음으로, 부정적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서비스 자원은 상대에게 일을 하게 함으로써 수고를 끼치거나 귀찮고 불편하게 하는 행위이다. 부정적 물품 자원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물건을 훼손하거나, 그것의 소유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다. 부정적 금전 자원은 상대에게 금전적 손해나 박탈을 초래하거나 돈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부정적 정보 자원은 상대방에게 귀속될 정보를 차단 또는 침해하거나, 거짓된 정보나 상대방의 말에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행위이다. 부정적 지위 자원은 상대방을 무시·비난 하는 말을 하거나 다른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체면과 자존심을 깎는 행위이다. 애정 자원은 애정과 친밀감의 결핍이나 상대의 증오를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3. 자원 교환의 측정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사이에 6개 영역의 긍정적, 부정적 자원들이 어떻게 교환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자원교환 내용을 측정할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교환되는 자원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은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의 행위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여 기술되었다. 교환의 행위는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 분량의 제약 때문에 받는 자원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자녀에게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원을 평가하게 하였으며, 어머니에게는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녀로부터 받은 자원을 평가하게 하였다.

설문 문항은 개방형 설문지를 통한 사전조사와 Foa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

행된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 (Rettig et al., 1993)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설문문항들은 영역별로 7~14개로, 자녀의 경우는 총 62개, 어머니의 경우는 총 61개의 문항이 만들어졌다. 이들 중 45개 문항은 자녀와 어머니가 공유하는 문항이고, 나머지는 자녀와 어머니 따로 다른 문항들이 만들어졌다.

자원의 교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첫째는 양적 차원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해당 자원을 주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원교환의 빈도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의 1~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교환의 빈도 자체는 객관적 현실이지만 측정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 척도는 어디까지나 교환빈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며, 객관적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질적 차원으로, 상대방이 주는 자원이 자신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은 예컨대 “어머니가 이플 때 보살펴 주는 경우 어떠실까요?”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싫다 - 싫다 - 약간 싫다 - 보통이다 - 약간 좋다 - 좋다 - 매우 좋다’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대개의 경우 자원은 양가적이기 보다는 긍정 또는 부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긍정적 자원의 경우 0~3점, 부정적 자원의 경우 0~3의 값을 지니는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4. 표본 조사

조사의 표본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150쌍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자녀로 제한하였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각 50사례 동수로 분할표집 하였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군 미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성별은 각각 75 사례가 되도록 하였다.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을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30개 어머니-자녀 쌍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을 위한 면접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훈련받은 면접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3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분석의 주 내용은 자원의 교환 빈도 및 가치의 집단 간 평균의 비교이며, 일원 또는 이원 변량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일차적인 독립변수는 설문대상(어머니-자녀 구분)이고, 부차적으로 자녀성별과 자녀발달단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녀 발달단계는 자녀의 교급(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측정되었다.

원칙적으로 집단 간 평균 차의 검증은 대상 집단이 문항을 공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주어진 설문과 자녀에게 주어진 설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서로 상응성이 있어서 비교의 결과의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을만한 경우에는 문항끼리 짝을 맞추어 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자원 항목별로 이루어졌으며, 다만, 결과의 해석은 영역별로 종합하여 시도하였다. 영역별로 척도를 개발하여 영역 간 통계적인 비교분석도 가능한 하겠으나, 본 연구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교환이 이루어지는지의 실태를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영역별 교환 척도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김현주 외, 2005 참조).

Ⅲ. 연구결과

1. 서비스의 교환

서비스 영역의 긍정적 자원은 어머니와 자녀간의 교환빈도가 대체로 높다. 특히 자녀의 경우, 일부 서비스 항목들은 측정된 모든 자원 항목 중에서 받는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들에 포함 된다 (부록1 참조). 자녀가 특히 많이 받는 것은 ‘아플 때 보살펴 주기,’ ‘먹을 것 챙겨주기,’ ‘아침에 깨워주기’ 등이다. 어머니와 자녀를 비교해 보면, ‘주물러 주거나 안마해 주는 것’ 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자녀가 어머니보다 더 많이 받고 있고 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2 참조).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은 많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항목에 대해 자녀가 부여하는 가치는 어머니가 부여하는 가치에 비해 훨씬 낮

다는 것이다. 반면에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오히려 자녀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녀가 ‘일을 도와(해)주거나’ ($p<.01$) ‘주물러주거나 안마해 주는 것’ ($p<.001$)에 대해서 어머니가 부여하는 가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같은 일을 했을 때 자녀가 부여하는 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아침에 깨워주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이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수고를 덜 뿐 엄밀한 의미에서는 받는 것이 없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둘을 비교하면 어머니가 받을 때의 가치가 높다 ($p<.001$).

〈표 2〉 서비스(service) 자원을 받는 빈도와 가치 평가 (평균값)

문항	빈도		t	가치		t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내 일을 도와(해) 준다.	2.97	2.75	7.029**	1.55	1.92	8.344**
나를 주물러 주거나 안마해 준다.	2.52	2.73	6.173*	1.37	2.00	22.328***
내가 아플 때 보살펴준다.	3.27	2.92	22.481***	1.95	2.16	3.238 +
내가 먹을 것을 챙겨준다 (가사를 거들어 준다.)	3.15	2.55	54.384***	1.82	1.89	0.313
내 방 청소를 해 준다. (자기 방 정돈을 한다.)	2.93	2.43	40.291***	1.42	1.97	11.830***
아침에 내가 학교에 늦지 않도록 깨워 주신다 (깨우지 않아도 혼자 일어난다.)	3.14	2.46	62.513***	1.54	1.98	8.650**
나에게 귀찮은 일을 시킨다.	2.49	2.27	11.119***	-1.11	-0.71	8.253**
내가 부탁한 일을 해 주지 않는다. (내가 심부름을 시켜도 해 주지 않는다.)	2.22	2.03	6.459*	-1.07	-1.53	9.498**
나에게 잘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 를 성가시게 만든다.	2.30	2.13	5.242*	-0.91	-0.56	5.695*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몸에 좋다고 먹 으라고 권하신다. --어머니 문항 없음.	2.85	-	-	-0.04	-	-

※ 괄호 안은 어머니 문항의 문구임. + $p<.10$, * $p<.05$, ** $p<.01$, *** $p<.001$.

부정적 서비스는 긍정적 서비스에 비하면 교환의 빈도가 낮지만, 다른 유형의 부정적 자원에 비해서는 대체로 빈번하게 교환되고 있다. ‘싫어하는 음식 권하기’는 자녀가 가장 빈번하게 받고 있는 부정적 서비스이다. 부정적인 항목 중 ‘귀찮은 일시키기’ ($p<.001$), ‘성가시게 하기’ ($p<.05$), ‘부탁한 일(심부름)

해주지 않기' ($p<.05$) 등은 어머니보다 자녀가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정적 서비스 자원들은 교환빈도는 높지만, 싫어하는 정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자녀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싫어하는 음식 권하기'의 경우, 부정적 항목으로 설문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름(부탁한 일) 해주지 않기'는 자녀보다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더 싫어하고 ($p<.01$), '귀찮은 일을 시키거나' ($p<.01$) '성가시게 하는 것'은 ($p<.05$) 자녀들이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서비스의 교환은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기는 하지만 심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성별 및 발달단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두 항목에 대해서 나타난다. '주물러 주거나 안마해 주기' 항목의 가치에 대해서는 성별 주 효과가 있다 ($p<.01$). 이 자원은 아들보다는 딸에게 가치가 더 크고,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아들보다 딸에게서 이 자원을 받을 때 가치가 더 크다. 서비스 영역의 다른 자원들에 대해서는 성별의 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8 참조). 자녀를 '아침에 깨워주는 일'의 빈도는 자녀의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어머니가 깨워주지 않아도 자녀가 '혼자 일어나는 것'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다 ($p<.01$; <표 9> 참조).

2. 물품 교환

긍정적 물품 자원은 서비스 자원에 비하면 전반적인 교환의 수준이 낮다. 긍정적 물품 자원도 서비스 자원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받는 것보다 자녀가 받는 빈도가 높다.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는 것'의 빈도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p<.001$) '음식물이나 장신구' ($p<.001$) 같이 일상의 소소한 물건들의 경우는 교환의 방향이 주로 어머니로부터 자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참조).

자녀의 입장에서 긍정적 물품은 금전과 함께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자원 유형이다. 어머니에게 긍정적 물품 자원이 지니는 가치는 자녀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음식물이나 장신구'의 경우는 자녀에게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p<.05$),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특별한 날에

받는 선물'에 대한 가치평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위나 애정 항목들에 비해서 긍정적 물품 항목들은 어머니에게는 가치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록2 참조).

물품 상의 손해가 발생 하는 부정적 교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자녀가 부모에 비해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유의 공간을 침해한다거나, 물건의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싫어하는 물건의 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다는 것은 물품의 구매력이나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내 물건을 쓴다거나' ($p<.01$)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일' ($p<.01$) 등은 보다 많은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더욱 빈번하게 당함직한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도 자녀가 당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물품(goods) 자원을 받는 빈도와 가치 평가 (평균값)

문 항	빈도		t	가치		t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준다.	2.87	2.52	20.512***	1.81	1.93	0.909
나한테 특별한 날에 선물을 준다.	2.69	2.68	0.006	2.18	1.99	3.026+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신구 같은 것을 사준다.	2.83	2.49	17.344***	1.90	1.63	4.315*
나만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한다.	2.17	1.97	6.323*	-1.34	-0.99	5.475*
어떤 물건은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2.33	2.08	9.441**	-0.91	-1.13	2.610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쓰도록 강요한다.	2.19	1.95	8.919**	-1.37	-1.15	2.888+
허락 없이 내 물건을 쓴다.	2.07	1.86	9.415**	-1.03	-1.16	1.051
나에게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	1.97	1.77	8.970**	-1.76	-1.77	0.004

+ $p<.10$, * $p<.05$, ** $p<.01$, *** $p<.001$.

물품과 관련된 행위 중 가장 싫은 것은 어머니, 자녀를 막론하고 '나에게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다루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정적 물품 교환에 따른 부정적 반응은 대체로 강하지 않은 편이다. '나만의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머니보다 자녀가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05$).

물품교환과 관련하여 자녀 성별의 효과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물품의 교환 빈도에 대해서는 세 항목 전부에 성별 주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들보다 딸이 어머니와 쌍방향으로 물품 교환을 더 빈번하게 하고 있다 ($p<.05$).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신구 등을 사주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교호작용이 나타난다. 어머니는 아들이 주면 딸이 주면 자녀가 그런 물건을 줄 때 경험하는 호감의 크기가 다르지 않는데, 딸이 그런 자원을 특히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05$).

부정적 물품 교환의 경우 ‘고유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는 일’과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의 사용을 강요하는 일’에 대해 설문대상과 자녀성별의 교호작용이 나타난다. 딸보다는 아들이 위와 같은 일을 더 많이 당하며, 어머니의 경우는 아들보다는 딸로부터 더 많이 당하고 있다 ($p<.01$). 빈도의 측정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수동적으로는 딸에게서 더 당하고, 능동적으로는 아들에게 더 한 다기보다, 딸이라면 ‘방해’나 ‘강요’로 받아들이지 않은 행동을 아들은 그와 같이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고유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는 일’의 교환빈도는 설문대상과 자녀 발달단계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한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와 자녀 쌍방 간에 그러한 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p<.01$).

3. 금전의 교환

돈의 교환은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가장 중요한 자원에 해당되며, 또 교환의 비대칭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 제시된 설문문항과 자녀들에게 제시된 설문문항들 중에서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다. <표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응적 의미를 지닌 문항끼리 최대한 짝을 맞추어 변량분석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어머니/자녀 집단 간 평균차의 해석에 큰 비중을 두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따라서 각 집단 내에서 평균치를 유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은 설문항목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자녀가 받는다고 응답한 항목이다. ‘나의 장래를 위해 돈을 모은다’는 것도 받는 빈도가 비교적 높은 항목에 속한다. 반면에 어머니가 자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이란, 자녀가 ‘돈을 아껴서 씀’으로써 지출을 줄이거나, 자녀

가 저금하는 정도이다 (표4, 부록1 참조).

〈표 4〉 금전(money) 자원을 받는 빈도와 가치 평가 (평균값)

문항	빈도		t	가치		t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등록금·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돈을 벌어서 생활에 보탬을 준다.)	3.47	1.66	587.675***	2.05	0.91	49.117***
내가 쓰기에 충분한 용돈을 주신다. (돈을 아껴서 쓴다.)	2.49	2.85	19.803***	1.89	1.87	0.31
나의 장래를 위해 돈을 모은다. (알아서 저금을 한다.)	2.90	2.47	26.964***	1.73	2.27	21.722***
기대하지 않은 용돈(돈)을 나에게 줄 때가 있다.	2.61	2.09	32.997***	2.11	1.33	25.308***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화를 낸다. (돈을 자꾸 달라고 한다.)	2.10	2.18	1.039	-1.53	-1.27	3.870*
내 맘대로 돈을 못 쓰게 한다. --어머니 문항 없음.	2.37	-	-	-1.21	-	-
집안 형편에 비해 돈을 많이 쓴다. (돈을 쓸 데 없는데 쓴다.)	1.76	2.01	10.444***	-1.41	-1.91	14.739***
(부모를 속여서 돈을 타낸다.) --자녀 문항 없음.	-	1.65	-	-	-2.21	-

※ 괄호 안은 어머니 문항의 문구임. * p<.05, ** p<.01, *** p<.001.

어머니가 주는 돈이 자녀에게 지니는 가치는 대단히 높다. ‘등록금, 학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용돈’이나 ‘충분한 용돈’의 경우도 비록 실제로 받는 빈도는 낮은 편이지만 가치가 높은 항목들이다 (부록2 참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돈을 벌어서 준다’거나 ‘기대치 않은 돈을 주는 것’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는 매우 낮다. 돈을 주는 것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저금하거나’ ‘돈을 아껴 쓰는 것’이 어머니에게 높은 가치를 지니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을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돈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자녀가 돈을 쓰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돈의 사용권한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금전 자원의 교환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주로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거나 금전 지출을 제재하는 형식으로,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돈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형식으로 경험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맘대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일’의 빈도가 다른 부정적 자원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으며, ‘돈을 달라고 할 때 화를 내는 일’의 빈도도 높은 편에 속한다.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경우가 비교적 빈번하다 (부록3 참조).

부정적 금전 자원에 대한 혐오감의 정도를 살펴보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고 할 때 화를 내는 것'이 가장 싫은 항목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돈과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 빈번하게 받는 부정적 자원은 자녀에게 강한 혐오감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금전 영역에서 자녀로부터 당하는 부정적 행동에 대한 혐오감이 자녀에 비해 강하다. '부모를 속여서 돈을 타내는' 경우가 가장 심하게 부정적이고, '돈을 쓸 데 없는데 쓰는' 것도 많이 싫어하는 편인데, 전자의 경우 발생빈도는 매우 낮다.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약하다.

자녀의 성별은 '저금하는 것'의 가치와 관련하여 설문대상자와 교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장래를 위해 저금하는 것의 긍정적 가치를 아들보다 딸이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p<.05$).

금전자원은 자녀의 발달단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자녀가 클수록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서 생활에 보탬을 주거나,' '예기치 않은 돈을 주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다 ($p<.01$). 그렇다고 절대적인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자녀가 발달단계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또 '기대하지 않은 돈'을 받기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전적 자원의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중학생과 대학생에 비해서 가운데 단계인 고등학생 자녀들이 '어머니가 나의 장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의 가치를 유달리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05$). 고등학교 때 대입을 앞두고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 금전 자원으로 자녀가 '집안형편에 비해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평가는 자녀의 발달단계가 높을수록 강해지고, 어머니가 '쓸 데 없는 데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평가는 자녀의 발달단계가 낮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p<.05$).

4. 정보의 교환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 정보는 다른 자원들에 비해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의 교환 빈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부록1 참조). 특히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긍정적 정보는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적다 (표5 참조). 어

머니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정보 항목들은 ‘자신의 비밀 이야기하기’ ($p<.001$)와 ‘자신의 중요한 일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 ($p<.05$)과 ‘메시지나 우편물을 전하는 것’ ($p<.01$) 등이다.

〈표 5〉 정보(information) 자원을 받는 빈도와 가치 평가 (평균값)

문항	빈도		t	가치		t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나와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2.95	2.84	1.991	1.65	2.02	9.946**
내 친구들이나 이성친구(아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면 들어준다.	2.85	2.73	2.379	1.34	1.40	0.163
자신의 주변 일들을 나에게 이야기 한다.	2.66	2.60	0.576	0.55	1.50	34.264***
나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2.24	2.52	10.633***	0.95	1.95	69.987***
가족(자신)의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내 의견을 진지하게 묻는다.	2.69	2.85	4.062*	1.44	1.93	12.812***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해 내게 알려준다.	2.67	2.71	0.442	1.58	1.77	1.960
대신 받은 전화 메시지나 우편물을 꼬박꼬박 전해 준다.	2.74	2.93	6.950**	1.38	1.94	19.161***
나의 학업에 관한 정보를 나에게 알려준다. --어머니 문항 없음.	2.66	-	-	1.20	-	-
(나에게 성적표를 보여준다.) --자녀 문항 없음.	-	3.11	-	-	1.75	-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면 싫은 티를 낸다.	2.11	2.16	0.395	-1.24	-1.11	0.884
나에 관해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려고 한다. (나에게 이것저것 참견을 한다.)	2.55	2.13	26.325***	-0.73	-0.92	1.264
나와 의견이 다를 때, 고집을 부린다.	2.55	2.42	2.274	-1.32	-1.48	1.482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2.09	2.10	0.010	-1.50	-1.83	5.064*
전화 엿듣거나 편지·일기장을 몰래 읽는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댄다.)	1.96	1.91	0.401	-2.03	-1.92	0.552
나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신다. --어머니 문항 없음.	2.79	-	-	-1.10	-	-
(나에게 시험 일정이나 중요한 학업일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자녀 문항 없음.	-	2.22	-	-	-0.75	-

※ 괄호 안은 어머니 문항의 문구임. * $p<.05$, ** $p<.01$, *** $p<.001$.

긍정적인 정보 자원에는 가치가 낮은 항목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자원 항목 중에서 정보 항목들의 가치가 대체로 매우 낮다. 그러나 어머니의 편에서는 가치가 낮은 정보 항목들도 있지만,

가치가 높은 항목들도 꽤 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것’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또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자신의 중요한 일에 대해 말하고 의견을 묻는 것’처럼 자녀 생활과 신상에 관련된 긴밀한 정보의 가치가 높다. 자녀의 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는 것의 가치가 최하에 속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록2 참조).

부정적인 정보 자원은 긍정적인 정보 자원보다는 전반적인 교환빈도는 낮지만, 다른 부정적 자원들과 비교하면 교환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많다 (부록3 참조).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로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듣는 것’의 빈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의견이 다를 때 고집을 부리는 것’과 ‘사소한 것까지 다 알려고 하는 것’의 빈도도 높은 편이다. 어머니도 자녀로부터 빈번하게 받는 부정적인 정보가 많이 있으며, 자녀가 받는 것과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단, ‘사소한 것까지 다 알려고 하는 것(자녀가 받는 항목)’과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어머니가 받는 항목)’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자녀가 받는 빈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p < .001$).

대부분의 부정적 정보 항목이 지니는 부정적 가치는 작은 편이다. 특히 자녀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주 받는 부정적 자원 항목의 대부분은 그 부정적 평가가 강하지 않다. 예를 들면, ‘공부하라는 말을 듣는 것’이나 ‘사소한 것까지 다 알려고 하는 것’을 대다수의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별로 심하지 않다. 단, ‘전화를 엿듣거나 일기장을 몰래 읽는 것(자녀가 받는 항목)’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어머니가 받는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자녀나 어머니의 부정적 평가가 강하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보 자원의 교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자녀 성별 효과이다 (표8 참조). 거의 대부분의 긍정적 정보 자원의 교환이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는 높은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보고한 바, 긍정적 정보가 다른 자원들에 비해 교환의 빈도가 대체로 낮다는 결과가 사실은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교환빈도가 낮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면, 주변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어머니도 아들보다는 딸과 많이 나누고, 자녀의 경우 아들보다는 딸이 어머니와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 < .001$ 또는 $p < .01$). ‘비밀 이야기 털어놓기’나 ‘중요한 일에 대한 의견 묻기’, ‘좋아하는 것에 관한 정보 주기’ 등 세 항목도 역시 아들보다는 딸과 어머니 사이에 자원교환이 빈번하지만, 딸과 어머니 사이에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즉, 딸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 보다, 어머

니가 딸로부터 받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긍정적 정보자원의 가치도 아들-어머니관계 보다 딸-어머니관계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설문대상자와 자녀성별간의 교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내용으로서, 어머니의 경우 딸이 주는 긍정적 정보 자원과 아들이 주는 긍정적 정보자원의 가치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자녀의 경우는 딸과 아들의 가치 평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야기 상대 되어주기’(p<.01)와 ‘아는 사람/친구에 대해 이야기 들어주기’(p<.05) 두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들 자원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들만 낮음을 볼 수 있다.

부정적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자녀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머니와 자녀 상호간 교환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또 ‘의견이 다를 때 고집 부리는 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약해지고 있는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나 자녀 상호간에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9 참조).

5. 지위의 교환

상대방의 지위를 높여주는 긍정적 지위 자원은 교환빈도가 중간 수준인 항목들이 많다 (부록1 참조). 또 어머니와 자녀 간 교환 빈도 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힘들어 할 때 격려해 준다’거나 ‘노력한 것에 대해 칭찬하는’ 등의 행위는 주로 어른이 아이에게 해 주는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자녀 간 받는 빈도에서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6 참조).

가치 면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 지위 자원에는 어머니에게 가장 가치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모든 영역을 망라하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자원이다 (부록2 참조). 상대방이 ‘나를 자랑스러워 한다’거나,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행위의 가치가 자녀에게 보다 어머니에게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p<.001).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이 지니는 가치도 자녀보다 어머니 편이 훨씬 높다 ($p<.01$).

〈표 6〉 지위(status) 자원을 받는 빈도와 가치 평가 (평균값)

문항	빈도			가치		
	자녀	어머니	t	자녀	어머니	t
어머니(그 아이) 덕분에 내 자존심이 높아진다.	2.57	2.72	3.411+	1.61	2.00	8.850**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2.85	2.74	2.400	1.87	2.23	10.960***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한 것에 대해 칭찬해 준다(좋게 말한다).	2.69	2.83	3.169+	1.77	1.76	0.002
내가 힘들어 할 때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다.	2.91	2.91	0.000	1.65	2.16	16.202***
(공부를 잘해서, 내가 뿌듯하다.) --자녀 문항 없음.	-	2.83	-	-	2.34	-
형제나 친구(다른 어머니)와 비교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무란다(비난한다).	2.07	1.63	32.960***	-1.89	-2.07	1.655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거라 여긴다.	2.29	1.79	40.817***	-1.31	-1.46	1.330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2.20	1.87	17.326***	-1.99	-1.91	0.528
잘못하고 나서도 나에게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2.11	1.99	2.822+	-1.45	-1.91	15.857***
어머니 (그 아이) 때문에 창피하다.	1.69	1.67	0.088	-1.45	-1.79	7.516*
밖에서 일을 저질러서 나를 곤란하게 한다.	1.65	1.70	0.365	-1.61	-1.69	0.283
내 생활을 감시한다. --어머니 문항 없음.	2.19	-	-	-1.59	-	1 -

※괄호 안은 어머니 문항의 문구임. + $p<.10$, * $p<.05$, ** $p<.01$, *** $p<.001$.

부정적 지위 자원은 다른 부정적 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환빈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교환빈도가 높은 편에 해당하는 부정적 지위 자원은 눈에 띄지 않으며 (부록3 참조), 교환빈도에서도 어머니와 자녀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표6 참조). 자녀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것이라고 무시당하기,’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 듣기,’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기,’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며 무시하기’ 등의 행위를 어머니로부터 더 자주 당하고 있다 ($p<.001$).

부정적 지위 자원에는 혐오도가 높은 항목들이 많은 편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시하거나 비난한다'거나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부모나 자녀 모두 심하게 싫어하는 항목들이다 (부록4 참조). 부정적 지위 자원 항목 중에서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p<.001)과 '상대방 때문에 창피하게 되는 것'(p<.05)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다.

자녀 성별은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 주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딸보다 아들이 더 싫어하고, 어머니의 경우는 딸로부터 당할 때 보다 아들로부터 당할 때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05).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무시한다'거나, '일을 저질러 곤란하게 하는 일'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와 교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p<.05). 이를 해석하면, 이들 항목에 나타나는 일을 당하는 것을 딸이 아들보다 더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유의하지는 않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딸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면 아들로부터 당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8 참조).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 성별에 따라 부정적 가치가 높은 지위 자원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발달단계는 일부 지위 항목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참조). 자녀의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결과보다 노력에 대해 칭찬하는 것'의 긍정적 가치가 작아지며 (p<.01), '과거 실수를 들추는 일'의 부정적 가치도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p<.05). 바꾸어 말하면, 자녀가 청소년기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런 유형의 부정적 교환이 더 큰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애정의 교환

긍정적 애정 자원은 모든 자원 영역 중에서 어머니-자녀 사이에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부록1 참조). '생일을 알아서 챙겨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어머니-자녀 간 교환빈도상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애정 자원의 가치는 자녀보다 어머니에게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좋아하는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라든지(p<.001), '친밀하게 대하기'(p<.001), '신체접촉으로 친밀감 표현하기'(p<.01) 등의 행위에 대해 어머니들이 부여하는 긍정적 가치는 자녀들이 부여하는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다 (표7 참조).

〈표 7〉 애정(love) 자원을 받는 빈도와 가치 평가(평균값)

문항	빈도			가치		
	자녀	어머니	t	자녀	어머니	t
나에게 친밀하게 대한다.	3.04	3.02	0.069	1.74	2.12	11.026***
내 생일을 알아서 챙겨준다.	3.20	2.84	19.550***	1.97	2.09	1.131
나를 껴안거나, 팔짱을 끼는 등 신체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2.83	2.77	0.427	1.57	1.91	6.737**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2.43	2.43	0.005	1.49	2.18	34.927***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3.02	2.96	0.815	1.97	1.96	0.011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내 편을 들어준다.	2.83	2.89	0.939	1.65	1.86	2.807 +
나에게 냉정하게 대한다.	1.94	1.90	0.284	-1.71	-2.00	5.092*
나와 같이 있는 것을 피한다.	1.62	1.65	0.240	-1.69	-1.92	3.158 +
내 말에 대꾸하지 않거나, 통명스레 말한다.	1.96	2.07	2.176	-1.71	-2.07	8.459**
내게 신경질을 내거나, 욕을 한다.	1.98	1.73	9.694**	-2.06	-2.23	2.244
내 앞에서 문을 꽂 닫거나, 물건을 던진다.	1.69	1.90	7.051**	-2.17	-2.33	2.320
나보다 다른 형제나 자매(자기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	2.17	2.39	8.246**	-0.89	0.89	141.393***

※ 괄호 안은 어머니 문항의 문구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긍정적 자원과 비교할 때 부정적 애정 자원은 전반적인 교환의 빈도가 낮다. 또, 다른 유형의 자원들과 비교해 보아도 교환빈도가 가장 낮은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3 참조). 어머니-자녀 간의 교환빈도의 차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상호간의 폭력행위 중 ‘신경질을 내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더 많고 ($p < .01$), ‘문을 꽂 닫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p < .01$). 부정적 애정항목 중 ‘나보다 다른 형제·자매(또는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는 항목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 편이 자녀 편보다 이런 일을 당하는 빈도가 높다 ($p < .01$).

부정적 애정 자원을 싫어하는 정도는 다른 영역의 부정적 자원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심하다 (부록4 참조). 자녀와 어머니 모두에게 부정적 반응의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문을 꽂 닫거나 물건 던지기’와 ‘신경질을 내거나 욕하기’이다.

<표 8> 자녀의 성별 어머니-자녀 간 교환자원: 이원변량분석 결과표 (발취)

자 원	빈도				자녀성별이 대상자 효과 과	자녀성별이 대상자 효과 과	가치				자녀성별이 대상자 효과 과	자녀성별이 대상자 효과 과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서 래 부	나를 주물러 주거나 안마해 준다.	2.65	2.39	2.71	2.76	*	+	1.66	1.08	2.11	1.89	***	**	
	좋아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준다.	2.95	2.80	2.64	2.40	***	*	1.85	1.77	1.85	2.01			
	나한테 특별한 날에 선물을 준다.	2.72	2.65	2.83	2.53	*		2.25	2.11	2.00	1.97	+		
	좋아하는 음식/장신구 등 사준다.	2.94	2.71	2.56	2.41	***	*	2.15	1.65	1.63	1.64	*	+ *	
	내 공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한다.	2.07	2.28	2.05	1.89	*	*	-1.32	-1.36	-1.00	-0.97			
	마음 안드는 물건 쓰게 강요한다.	2.05	2.32	2.04	1.85	**	**	-1.33	-1.41	-1.17	-1.13			
금	나를 위해 (알아서) 저금한다.	2.89	2.90	2.45	2.49	***		1.93	1.53	2.24	2.29	***	*	
	나와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3.13	2.76	3.00	2.68	***		1.99	1.31	2.04	2.00	**	** **	
정 보	친구(아는 사람)이야기 들어준다.	2.95	2.75	2.87	2.59	**		1.63	1.05	1.40	1.40	*	*	
	자신의 주변 이야기를 한다.	2.83	2.49	2.81	2.39	***		0.77	0.33	1.56	1.44	***	+	
	비밀스러운 이야기 털어놓는다.	2.34	2.13	2.77	2.27	***	***	+	1.23	0.68	2.04	1.87	***	**
	중요한 일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2.76	2.63	3.04	2.65	*	***	+	1.53	1.35	2.00	1.85	***	
	좋아하는 것에 관해 알려준다.	2.69	2.64	2.88	2.55	**	*		1.71	1.45	1.87	1.67		+
지 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무시한다.	2.09	2.08	1.69	1.56	**		-2.00	-1.79	-2.23	-1.91		*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다.	2.04	2.19	1.99	2.00	+		-1.37	-1.52	-1.72	-2.11	***	*	
	일을 저질러 나를 곤란하게 한다.	1.56	1.75	1.69	1.71			-1.72	-1.49	-1.91	-1.47		*	
애 정	나에게 친밀하게 대한다.	3.21	2.86	3.14	2.89	***		1.82	1.62	2.15	2.09	***		
	내 생일을 알아서 챙겨준다.	3.31	3.08	3.01	2.67	***	***	1.99	1.93	2.03	2.15			
	신체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2.93	2.71	3.00	2.53	***		1.79	1.32	1.89	1.92	**	+ *	
	좋아하는 감정 말/글로 표현한다.	2.49	2.40	2.63	2.23	**	+	1.47	1.47	2.24	2.12	***		
	내 편을 들어준다.	2.89	2.78	2.99	2.80	*		1.71	1.55	1.96	1.76	+		
	나에게 냉정하게 대한다	1.89	1.99	1.80	2.00	*		-1.84	-1.59	-1.95	-2.05	*		
	신경질을 내거나 욕을 한다.	1.97	1.99	1.72	1.75	**		-2.25	-1.87	-2.11	-2.36		**	

※ 괄호 안은 어머니 문항의 문구임. + p<.10, * p<.05, ** p<.01, *** p<.001.

그 외에 ‘대꾸하지 않거나 투명스럽게 말하기’나 ‘냉정하게 대하기’의 경우도 부정적 반응의 정도가 심한 편이며,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강도는 자녀보다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p<.01 또는 p<.05).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나보다 다른 형제·자매(또는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는 항목에 대

한 가치평가가 의외로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60%로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표 9〉 자녀의 발달단계별 어머니-자녀 간 교환자원: 이원변량분석 결과표 (발체)

자	원	빈도						가치								
		자녀			어머니			자녀			어머니					
		중	고	대	중	고	대	중	고	대	중	고	대			
서	깨워준다 (혼자 일어난다)	3.2	3.2	3.0	2.3	2.4	2.7	**	**	1.6	1.7	1.3	2.0	1.9	2.0	**
물	공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한다.	2.5	2.1	2.0	2.1	2.0	1.9	**	**	-1.4	-1.5	-1.2	-1.1	-0.9	-0.9	*
금	경제 지원 한다 (돈벌어 준다).	3.5	3.5	3.4	1.3	1.6	2.0	***	**	2.0	2.2	2.0	0.6	1.1	1.0	***
	나를 위해 (알아서) 저금한다.	2.8	3.0	3.0	2.3	2.6	2.5	***	+	1.6	2.1	1.5	2.3	2.2	2.3	***
	기대하지 않은 돈 준다.	2.4	2.7	2.7	1.9	2.2	2.2	***	**	2.2	2.3	1.9	1.2	1.5	1.3	***
	돈 많이(쓸데없는데) 쓴다.	1.8	1.8	1.7	2.0	2.0	2.0	***		-1.8	-1.2	-1.3	-1.8	-1.9	-2.0	***
정	좋아하는 것에 관해 알려준다.	2.5	2.8	2.7	2.5	2.7	2.9	**		1.6	1.5	1.6	1.8	1.9	1.6	
	의견이 다를 때 고집 부린다.	2.6	2.6	2.4	2.5	2.3	2.5			-1.6	-1.1	-1.2	-1.6	-1.7	-1.2	* +
지	결과보다 노력을 칭찬한다.	2.7	2.6	2.8	2.9	2.8	2.9	+		2.0	2.0	1.3	1.9	1.9	1.5	**
	과거 실수를 자주 이야기한다	2.3	2.2	2.1	1.8	1.8	2.0	**		-2.3	-1.9	-1.8	-2.1	-1.9	-1.8	*
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3.0	3.0	3.0	3.0	3.0	2.9			2.1	2.0	1.8	1.9	2.3	1.7	*
	신경질을 내거나 욕을 한다.	2.1	2.0	1.8	1.7	1.8	1.7	**		-2.3	-2.0	-1.9	-2.4	-2.2	-2.0	*
	문 핑 달거나 물건을 던진다.	1.8	1.7	1.6	1.8	2.0	1.9	**		-2.2	-2.4	-1.9	-2.5	-2.3	-2.2	*

※ 괄호 안은 어머니 문항의 문구임. + p<.10, * p<.05, ** p<.01, *** p<.001.

자녀의 성별은 긍정적 애정 자원의 교환빈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항목만을 제외하고 모든 긍정적 항목의 교환이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보다 빈번하게 교환되고 있다 (표8 참조). 이는 긍정적 정보 자원의 교환 양상과 비슷하다.

자녀의 성별은 긍정적 애정 자원의 가치에 대해서는 영향을 덜 미치고 있다. ‘신체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녀 성별과 설문대상자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p<.05). 이를 해석하면, 어머니의 경우 이 자원을 딸이 주면 아들이 주면 차이 없이 가치가 비교적 높은데, 자녀의 경우 딸들은 어머니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아들들은 훨씬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또 부정적 애정 자원의 항목인

‘신경질을 내거나 욕을 한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설문대상자와 교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p < .01$). 어머니가 이러한 행동을 자신에게 하는 것에 대해 아들보다 딸이 훨씬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머니의 경우는 딸보다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해 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강하다 (표8 참조).

자녀의 발달단계는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하거나,’ ‘문을 꽁 닫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평가에 주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p < .05$), 대체적으로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약해진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어머니들도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행동을 해올 때 더욱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IV. 토의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자원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1. 긍정적 자원의 교환

우선 서비스 영역에서의 교환 양상을 살펴보면,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긍정적 서비스 자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자원은 대부분 일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높은 가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서비스 자원을 적게 받지만,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긍정적 물품 자원도 역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경우가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서비스 자원과 비교하면, 자녀에게 물품 자원은 받는 양은 적지만 가치는 높은 편이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날의 선물’처럼 상징적 가치가 내포된 물품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가 제공하는 물품의 가치는 대체로 낮고, 또 실제로 받는 일도 적다. ‘특별한 날의 선물’조차도 ‘아플 때 보살펴 주는’ 것 같은 서비스 자원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금전의 경우는 자녀가 거의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

는 돈의 가치를 대체로 높게 여기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거나 저축해 주는 돈보다 당장 주는 용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 반대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현재 제공하는 돈의 가치는 낮고, 자녀 자신을 위해 저축을 하거나 돈을 아껴 쓰는 것의 가치가 높다.

정보 영역의 긍정적 자원은 전반적으로 교환 빈도가 낮다.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는 대체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제공하는 정보 중 일부의 가치가 높는데, 어머니가 높은 가치를 두는 정보 자원이란, 주로 자녀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또는 ‘자신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는 것’이다.

지위 영역의 긍정적 자원은 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원이 아니며, 또 빈도 면에서도 어머니와 자녀 간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긍정적 지위 자원은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를 통해 자신의 위신과 자존심은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긍정적 애정 자원은 어머니와 자녀 간에 상호적인 교환이 가장 빈번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가치 또한 어머니와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높은 편인데, 자녀보다는 어머니에게 높다. 어머니에게는 애정은 지위와 더불어 가치가 가장 높은 자원영역이다. 애정은 자녀의 입장에서조차 가치가 높은 지원이지만, 금전이나 물품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긍정적 자원의 교환은 애정자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자원이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받는 자원보다 대체적으로 많다. 이러한 사실은 <부록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록1>은 평균 빈도가 2.80이 넘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녀의 경우는 18개 항목이 포함된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항목수가 12개이다. 자녀는 서비스와 금전 자원을 특히 많이 받으며, 물품 자원도 많이 받는 편이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높은 빈도로 받는 긍정적 자원은 애정 외에는 없다. 그 다음으로 정보 자원 중 자녀에 관한 개인적 정보를 받는 빈도가 약간 높은 정도이다. 나머지 유형은 받는 빈도가 낮다.

대신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주는 자원의 가치가 높다. <부록2>는 가치평가 점수가 1.80이 넘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녀의 경우는 11개 항목이 포함된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항목수가 24개나 된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받는 것이 양적으로는 적어도, 받게 되면 크게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받는 물품이나 금전 자원은 대체로 가치가 크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 받는 빈도가 높지만, 가치는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효과는 적다고 볼 수 있다.

2. 부정적 자원의 교환

부정적 자원은 긍정적 자원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교환의 빈도가 다소 떨어진다. 그래도 비교적 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서비스, 금전, 정보 영역이 그런 영역들이다. 물품 영역은 이들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영역의 부정적 자원은 부정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지위나 애정 영역의 부정적 교환의 빈도는 낮다. 그러나 지위와 애정 영역의 부정적 자원은 그 부정적 가치가 매우 높다.

어머니와 자녀 간 교환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빈도 상으로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부정적 자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으며 (부록3 참조), 특히 서비스, 물품, 지위 영역에서 그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신 지위와 애정 영역의 부정적 교환이 지니는 부정적 가치는 어머니에게 더 큰 것으로 발견된다. 자녀보다 어머니가 지위와 애정 영역의 부정적 교환에 대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정적 자원의 교환에서는 흥미로운 패턴 두 가지가 발견된다.

첫째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교환의 비대칭성이 긍정적 자원에 비해 작다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약간의 비대칭성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많이 받는 자원은 어머니도 많이 받고, 자녀가 적게 받는 자원은 어머니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정적 자원은 긍정적 자원과 달리 경제력처럼 자신이 보유하는 능력이나, 상대방의 생애 발달단계에 따른 원천적인 의존성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행동성 자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비대칭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패턴은 교환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자원은 그 부정적 가치가 작고, 부정적 가치가 큰 자원은 교환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부정적 자원은 처벌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잠재적으로 처벌효과가 큰 자원의 교환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녀 성별의 효과

자원의 교환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보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정보와 애정영역이다. 어머니와 딸 상호간에는 자기 주변과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밀을 털어놓고, 중요한 일에 대해 의견을 묻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누기 등 전반적으로 서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일이 많이 있으나,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이와 같은 교환이 일어나는 예가 드물다. 또한 친밀하게 대하고,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고, 생일도 챙겨주는 등의 일도 아들과 어머니 사이보다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훨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품 영역에서도 특별한 날의 선물을 비롯하여 좋아하거나 필요한 물건들, 사소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신구를 제공하는 일이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환되는 자원의 가치도 아들보다는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들보다는 딸이 어머니가 제공하는 자원을 높이 평가하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같은 유형의 자원이라도 아들보다 딸이 줄 때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자원의 예로는 첫째, 서비스 영역에서 ‘주물러 주고 안마해 주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아들은 딸에 비해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 서비스를 선호하는 강도가 약하다. 또 서로 자기 주변과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밀을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일에 대해서도 아들은 딸만큼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아들은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 딸에 비해 더 못마땅해 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아들은 개인공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의 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민감하게 지각한다.

4. 자녀 발달단계의 효과

자녀의 발달단계는 성별만큼 주목할 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발달단계의 효과가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깨워주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지고,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개인 공간을 침해하는 일이 줄어드는 등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연구결과에도 반영되고 있다. 의견이 다를 때 고집을 부리는 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완화되는 현상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준다든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상호간 제공하는 것처럼 어머니와 자녀 간에 실용적인 자원의 교환이 증가하는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실수 들춘다든지, 신경질을 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녀의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머니나 자녀 양편에서 모두 약해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가 초기 청소년기를 맞는 시기에 더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녀의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상에서 제시한 차이들 보다,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자녀가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교환되는 자원의 내용이나 가치에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도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얻는 자원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내용도 별로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엇이 교환되는지, 상호간에 해 주는 일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자원의 제공이 대체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상호적인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교환의 양상이 달라지는지 등의 현실을 파악해 보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Foa 등(1993)의 6가지 자원영역 개념과, 보상적 가치를 지니는 긍정적 자원과 처벌적 가치를 지니는 부정적 자원의 구분을 활용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가 국내에서는 자원개념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간의 관계를 진단하는 첫 연구이며 표본의 크기도 작은 편이기 때문에, 조사된 항목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환

관계를 얼마나 적절하게 대표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를 조명해 본 첫 작업의 결과로 몇 가지 의미있는 발견들을 얻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교환이 부정적 자원보다는 긍정적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청소년기는 어머니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연구결과 긍정적 자원의 교환이 관계의 근간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서 긍정적 자원의 교환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자녀가 일방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서비스와 금전적 지원과 물품을 많이 받지만, 어머니는 정보를 더 얻는다. 그리고 양적으로는 자녀가 더 많이 받는 자원이 많지만, 가치의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받는 것이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서비스 자원은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자원 유형이지만, 보상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보다는 금전--그 중에서도 장래를 위한 지원보다는 당장에 쓸 수 있는 용돈이나 물품과 같은 유형의 자원인데, 그러한 자원은 상대적으로 교환빈도가 낮다. 어머니는 비록 자주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지위 등의 자원이 큰 보상효과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와 자녀간의 자원 교환은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편에서 어머니로부터 물질적인 차원의 자원을 많이 받고, 어머니의 편에서는 높은 가치의 자원을 받는 형태로 일종의 상호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애정은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 교환빈도도 높고, 가치도 높고, 또 대칭성도 높은 자원이다. 애정 자원의 가치가 대체로 자녀보다 어머니에게 더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자녀에게 서비스와 물품, 금전 등을 거의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애정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적절할 만큼 상호적으로 높은 빈도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자원에 대한 의존성보다 애정에 대한 상호의존이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유대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보의 교환은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유대가 감정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을 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면은 약하다고 진단해 볼 수 있겠다.

부정적 자원의 교환은 긍정적 자원보다는 낮은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서비스, 금전, 정보 영역에서는 부정적 자원의 교환이 상대적으로 빈번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어머니보다는 자녀가 부정적 자원을 더 자주 받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의 처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처벌효과가 높은 지위와 애정 영역의 자원은 교환빈도가 낮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실제의 부정적 자원의 교환이 설문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설문문항들은 부분적으로는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보다 일반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적 행동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정적 자원들은 긍정적 자원에 비해 대체로 교환빈도도 낮을 뿐 아니라, 부정적 자원들 중 상대적으로 교환빈도가 높은 자원들은 그것이 지니는 처벌적 효과는 낮다.

자녀의 성별은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교환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와 애정 영역에서 아들보다 딸과 어머니 사이에 자원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애정표현을 긴밀하게 하는 중요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러한 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며,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기대조차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망라하는 청소년기 자녀와 그 어머니가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기 내부의 연령 차이는 어머니와 자녀 간 교환에 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도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자원이 증가하지 않고,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이동원 외(1995),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김현주·이선이·이여봉(2005), “어머니와 자녀간 자원교환척도 개발” 한국조
 사연구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논문집 115-140).
 이여봉·이미정(2003),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 전문가 의견조
 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5(1), 131-158.

- Ambry, M. K (1992), "Childless Dances." *American Demographics* 14:55.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 Blood, R. O, Jr. and D. M. Wolfe (1960), *Husbands and Wives*, NY: the Free Press.
- Bronfenbrenner, U. (1970), *Two Worlds of Childhood: U.S and U.S.S.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eWitt. P. M. (1992), "In Pursuit of Pregnancy." *American Demographics* 15:48-53.
- Finch, M. and J. Mason (1993), *Negotiating Family Responsibilities*. London, England: Routledge.
- Foa, U. G., J. Converse, Jr., K. Y. Törnblom, and E. B. Foa (1993), *Resource Theory: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Academic Press, Inc.
- Hoffman, L. W. and J. D. Manis (1979),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583-596.
- Lamanna, M. A. (1977), "The Value of Children to Natural and Adoptive Parents." Ph.D. Dissertation, Dept. of Sociology, University of Notre Dame.
- Luster, T., K. Rhodes, and B. Hass (198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 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39-47.
- Pyke, K. (1999), "The Mycropolitics of Care in Relationships Between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61-687.
- Rettig, K. D., S. M. Danes, and J. W. Bauer (1993),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Family Life Equality Among Economically Stressed Farm Families." In U .G. Foa, J. Converse, Jr., K. Y. Törnblom, and E. B. Foa (Eds.), *Resource Theory: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Academic Press, Inc.
- Silverstein, M., and V. L. Bengtson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3, 429-460.
- Silverstein, M., T. M. Parrot, and V. L. Bengtson (1995), "Factors That

- Predispose Middle-Aged Sons and Daughters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65-475.
- Sprecher, S., and P. Schwartz (1994), “Equity and Balance in the Exchange of Contributions in Close Relationships.” In Lerner, Melvin J. and Gerold Mikula (eds.), *Entitlement and the Affectional Bond: Justice in Close Relationships*.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Steinberg, L. and S. B. Silverberg (1987),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Middle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51-760.
- Walster, E., G. W. Walster, and E. Berscheid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Allyn and Bacon, Boston, MA.
- Whitbeck, L. B., D. R. Hoyt, and S. M. Huck (1994), “Early Family Relationship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Provided to Parents by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9(2), S85-S94.
- Zelizer, V. K. (1985), *Pricing the Priceless Child: The Changing Social Value of Children*. New York: Basic Books.

<부록 1> 어머니와 자녀 간에 빈번하게 교환되는 긍정적 자원

자녀가 많이 받는 것

- 3.47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 나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 준다. (금전)
- 3.27 내가 아플 때 보살펴준다. (서비스)
- 3.20 내 생일을 알아서 챙겨준다. (애정)
- 3.15 내가 먹을 것을 챙겨준다. (서비스)
- 3.14 아침에 내가 학교에 늦지 않도록 깨워주신다. (서비스)
- 3.04 나를 친밀하게 대한다. (애정)
- 3.02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애정)
- 2.97 내 일을 도와 준다. (서비스)
- 2.95 나와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정보)
- 2.93 내 방 청소를 해 준다. (서비스)
- 2.91 내가 힘들어할 때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다. (지위)
- 2.90 나의 장래를 위해 돈을 모은다. (금전)
- 2.87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준다. (물품)
- 2.85 내가 친구들이나 이성친구에 대해 이야기 하면 들어준다. (정보)
- 2.85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지위)
- 2.83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신구 같은 것을 사준다. (물품)
- 2.83 나를 껴안거나, 팔짱을 끼는 등 신체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애정)
- 2.83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내 편을 들어준다. (애정)

어머니가 많이 받는 것

- 3.02 나를 친밀하게 대한다. (애정)
- 2.96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애정)
- 2.93 대신 받은 전화 메시지나 우편물을 꼬박꼬박 전해 준다. (정보)
- 2.92 내가 아플 때 보살펴준다. (서비스)
- 2.91 내가 힘들어할 때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다. (지위)
- 2.89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내 편을 들어준다. (애정)
- 2.85 돈을 아껴서 쓴다. (금전)
- 2.85 자신의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내 의견을 진지하게 묻는다. (정보)
- 2.84 나와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정보)
- 2.84 내 생일을 알아서 챙겨준다. (애정)
- 2.83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 좋게 말한다. (지위)
- 2.83 공부를 잘 해서 내가 뿌듯하다. (지위)

〈부록 2〉 평균점수의 순위에 따른 긍정적 자원의 가치

자녀가 좋아하는 것

- 2.18 특별한 날에 선물을 준다. (물품)
- 2.11 기대하지 않은 용돈을 나에게 줄 때가 있다. (금전)
- 2.05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 나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금전)
- 1.97 내 생일을 알아서 챙겨준다. (애정)
- 1.97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애정)
- 1.95 내가 아플 때 보살펴준다. (서비스)
- 1.90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신구 같은 것을 사준다. (물품)
- 1.89 내가 쓰기에 충분한 용돈을 주신다. (금전)
- 1.87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지위)
- 1.82 내가 먹을 것을 챙겨준다. (서비스)
- 1.81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준다. (물품)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 2.34 공부 잘 해서 뿌듯하다. (지위)
- 2.27 알아서 저금을 한다. (금전)
- 2.23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지위)
- 2.18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애정)
- 2.16 내가 아플 때 보살펴 준다. (서비스)
- 2.16 내가 힘들어 할 때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다. (지위)
- 2.12 나에게 친밀하게 대한다. (애정)
- 2.09 내 생일을 알아서 챙겨준다. (애정)
- 2.02 나와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정보)
- 2.00 나를 주물러주거나 안마해 준다. (서비스)
- 2.00 그 아이 덕분에 내 자존심이 높아진다. (지위)
- 1.99 나한테 특별한 날에 선물을 준다. (물품)
- 1.98 깨우지 않아도 혼자 일어난다. (서비스)
- 1.97 자기 방 정돈을 한다. (서비스)
- 1.96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애정)
- 1.95 나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정보)
- 1.94 대신 받은 전화 메시지나 우편물을 꼬박꼬박 전해준다. (정보)
- 1.93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준다. (물품)
- 1.93 자신의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내 의견을 진지하게 묻는다. (정보)
- 1.92 내 일을 해 준다. (서비스)
- 1.91 꺼안거나, 팔짱을 끼는 등 신체적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애정)
- 1.89 가사를 거들어준다. (서비스)
- 1.87 돈을 아껴서 쓴다. (금전)
- 1.86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내 편을 들어준다. (애정)

〈부록 3〉 어머니와 자녀 간에 빈번하게 교환되는 부정적 자원

자녀가 많이 받는 것

- 2.85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권하신다. (서비스)
- 2.79 나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신다. (정보)
- 2.55 나에 관해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려고 한다. (정보)
- 2.55 나와 의견이 다를 때, 고집을 부린다. (정보)
- 2.49 나에게 귀찮은 일을 시킨다. (서비스)
- 2.37 내 맘대로 돈을 못 쓰게 한다. (금전)
- 2.33 어떤 물건은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물품)
- 2.30 나에게 잘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성가시게 만든다. (서비스)
- 2.29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거라 여긴다. (지위)
- 2.22 내가 부탁한 일을 해 주지 않는다. (서비스)
- 2.20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꾸 이야기한다. (지위)
- 2.19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쓰도록 강요한다. (물품)
- 2.17 나만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한다. (물품)
- 2.17 나보다 다른 형제나 자매를 더 좋아한다. (애정)
- 2.11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싫은 티를 낸다. (정보)
- 2.11 잘못하고 나서도 나에게 미안해하거나 사죄하지 않는다. (지위)
- 2.10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화를 낸다. (금전)

어머니가 많이 받는 것

- 2.78 나에게 시험 일정이나 중요한 학업일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정보)
- 2.42 나와 의견이 다를 때, 고집을 부린다. (정보)
- 2.27 나에게 귀찮은 일을 시킨다. (서비스)
- 2.22 나에게 시험일정이나 중요한 학업일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정보)
- 2.18 돈을 자꾸 달라고 한다. (금전)
- 2.16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싫은 티를 낸다. (정보)
- 2.13 나에게 잘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성가시게 만든다. (서비스)
- 2.13 나에게 이것저것 참견을 한다. (정보)
- 2.10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정보)

〈부록 4〉 평균점수의 순위에 따른 부정적 자원의 가치

자녀가 싫어하는 것

- 2.17 내 앞에서 문을 광 닫거나, 물건을 던진다. (애정)
- 2.06 내게 신경질을 내거나, 욕을 한다. (애정)
- 2.03 전화를 엿듣거나 편지, 일기장을 몰래 읽는다. (정보)
- 1.99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꾸 이야기한다. (지위)
- 1.89 형제나 내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무란다. (지위)
- 1.76 나에게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 (물품)
- 1.71 나에게 냉정하게 대한다. (애정)
- 1.71 내 말에 대꾸하지 않거나, 통명스레 말한다. (애정)
- 1.69 나와 같이 있는 것을 피한다. (애정)
- 1.61 밖에서 일을 저질러서 나를 곤란하게 한다. (지위)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

- 2.33 내 앞에서 문을 광 닫거나, 물건을 던진다. (애정)
- 2.23 내게 신경질을 내거나, 욕을 한다. (애정)
- 2.21 부모를 속여서 돈을 타낸다. (금전)
- 2.07 다른 어머니들과 비교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한다. (지위)
- 2.07 내 말에 대꾸하지 않거나, 통명스레 말한다. (애정)
- 2.00 나에게 냉정하게 대한다. (애정)
- 1.92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댄다. (정보)
- 1.92 나와 같이 있는 것을 피한다. (애정)
- 1.91 돈을 쓸 데 없는데 쓴다. (금전)
- 1.91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꾸 이야기한다. (지위)
- 1.91 잘못하고 나서도 나에게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지위)
- 1.83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정보)
- 1.79 그 아이 때문에 창피하다. (지위)
- 1.77 나에게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 (물품)
- 1.69 밖에서 일을 저질러서 나를 곤란하게 한다. (지위)